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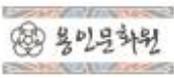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용인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대학일반부	국 적	내국인
공모분야	홍보콘텐츠	세부분야	단편 드라마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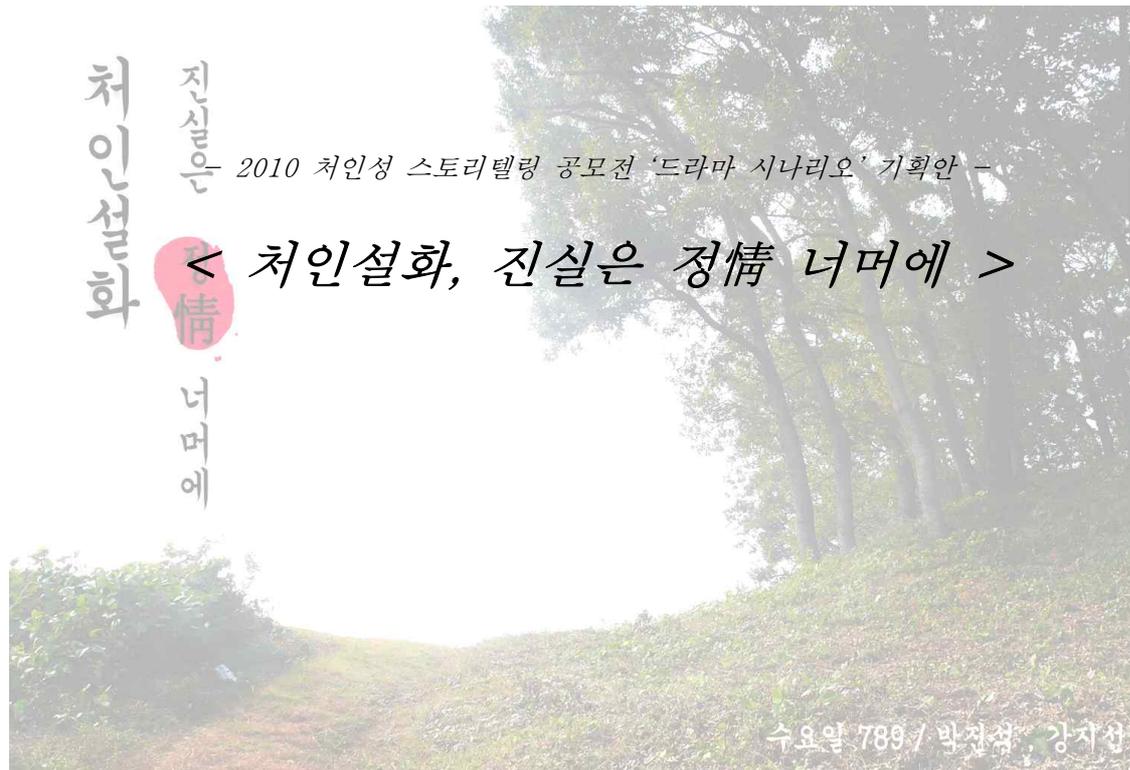
출품자 프로필			
성 명	박진석	소속(학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성 명	강지선	소속(학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토리텔링 창작물 개요	
제 목	처인설화, 진실은 정 너머에
주 제	처인성 전투라는 비극적인 상황, 적군과 아군이라는 냉철한 피아식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을 그려본다.
주요내용	<p>용인시에 살고 있는 18살의 여고생 영희는 절친한 친구 지선이 서울로 이사 가게 됨을 통보받는다. 하나 둘 떠나는 친구들로 인해 우울한 영희는 불현 듯 꾸게 된 꿈에서 고려인 남성과 알 수 없는 어떤 물건을 보게 되고, 다음 날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처인성 으로 향한다.</p> <p>처인성 터에 도착한 영희는 그곳에서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유물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유물을 신고하기 위해 용인시 문화원 원장을 만난 영희 일행은 그 유물과 용인에 얽힌 한 설화를 듣게 된다.</p> <p><설화 : 원나라의 1차 침입 후, 내정 간섭을 위해 파견된 다루가치는 건강의 악화로 진료를 받게 된다. 고려 의원은 다루가치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비책을 찾아내 처방하고, 이에 감동받은 다루가치는 의원에게 깊은 정을 느끼며 가족물통을 선물한다. 이 물건은 추후 김윤후와 살리타이 사이 휴전 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평화의 KEY 가 된다. ></p> <p>이처럼 냉랭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며 영희는 용인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p>



조이름: 수요일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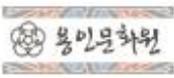
조원: 박진석, 강지선



목차

1. 제목
2. 기획 개요
3. 기획 의도
4. 매체 선정 이유
5. 파급효과

6. 시나리오 주제
7. 시나리오 등장인물
8. 시나리오의 간략한 줄거리
9. 관련사료
10. 드라마 타이틀 예시



1. 제목

처인설화 ,진실은 정情 너머에

2. 기획 개요

제목	처인설화 (부제: 진실은 정(情) 너머에)
형식	단편 드라마(50분)
수행범위	드라마 시나리오 및 기획안, 시놉시스
대상	남녀노소를 불문한 용인시민들과 이 드라마를 시청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

3. 기획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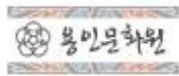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1) ‘스토리’에 중점을 두다

스토리텔링 공모전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중점을 두었다. 제대로 된 스토리가 없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든 그 콘텐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힘들고, 오랜 생명력을 가지기도 어렵다. 하루에 수십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고 일 년에 수십 편의 드라마가 제작되지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콘텐츠는 탄탄한 스토리가 기반이 된 콘텐츠다. 물론 화제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스토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1회성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기획은 ‘드라마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창작했지만, ‘처인성과 관련된 스토리’라는 원천 소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몽골과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다

2010년은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2010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10 처인성 문화제’에서도 다양한 한몽친선행사를 진행했었다. 주한몽골대사와 용인시장의 만남, 김윤후-살리타 화해 퍼포먼스, 몽골국제학교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친선공연 등이 그 예이다.

문화제를 직접 다녀온 후, 공모전을 위해 문화제 콘텐츠를 분석하다 ‘처인성 전투를 놓고 보았을 때 적대국이었던 두 나라가 현재는 상당한 친분관계를 쌓고 있다’라는 사실이 문화제에서 강조됨을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국(고려)와 몽골(원)과의 관계를 좀 더 평화적으로 그려낼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스토리



내에 ‘평화적’인 해결책의 요소를 삽입했다.

3) 액자식 구성

이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액자식 구성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형식이므로 익숙한 만큼 깊은 몰입도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따라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을 통해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 전달과 재미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액자식 구성 속에서 과거 용인에 살았던 사람과 현재 용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통해 연결되는 모습을 그려내어, 용인시민들의 화합을 보여주고자 한다.

4. 매체 선정 이유

시나리오의 경우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글을 쓴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매체 중에서도 ‘단편 드라마’를 선택했다.

먼저 영상 매체를 선택한 이유는 한 번 제작한 후로 영구 보존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용인시 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애乡심을 키우기 위해 다량으로 복제하여 배포할 수도 있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매체들과는 달리 반응이 좋을 경우 시리즈물로 기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겠다. 현재 다양한 드라마 성격 중 가장 손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극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스토리가 탄탄한 사극(퓨전 사극, 정통 사극 모두)의 경우 시청률이 매우 높게 나온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주몽, 선덕여왕, 이산, 태조 왕건, 천추 태후, 허준,동이 등.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보게 되는 ‘마력’을 가진 사극을 거울삼아, 처인성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기에는 그 어떤 다른 방식보다도 ‘드라마’로 제작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형식 중에서도 단편을 선택한 이유는,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시절에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 따라서 기존 패러다임과 조금 다른 한국(고려)과 몽골(원)의 평화적인 관계를 보여주려면 단시간에 임팩트가 큰 단편드라마가 적절한 매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료의 영구 보존과 활용이 자유로운 영상 매체 중에서도,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 낸 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단편 드라마를 매체로 선정하였다.

5. 파급효과

1) 관심과 흥미 제고

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인 단편 드라마를 통해 처인성 이야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 제고를 유도한다.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본 지명과 인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2) 고려시대 복식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 재현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배경은 고려시대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서 고려시대의 복식을 재현하고, 다양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녹여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고려시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시나리오 주제

처인성 전투라는 비극적인 상황, 적군과 아군이라는 냉철한 피아식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을 그려본다.

7. 시나리오 등장인물

인물		설정
	할아버지 변희봉 분	조상대대로 용인시에서 살아온 70대 노인. 용인시 토박이로 애향심이 강하고, 용인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영희(손녀) 고아성 분	용인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8세, 활기차고 생각이 깊은 소녀이다. 서울로 하나 둘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지만 처인성과 관련된 유물, 설화를 통해 용인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
	지선 한보배 분	영희의 친구. 영희와 용인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떠나게 되어, 영희와 할아버지를 처인성으로 향하게 하는 인물. 지선의 전학은 '영희가 처인성과 관련된 유물을 발견하는' 중요한 사건의 발단이 된다.
	용인문화원 원장 최도빈 분	용인시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용인문화원의 원장으로 나이는 52세, 남자이다. 영희가 가져온 유물에 얽힌 '처인설화'를 영희에게 전한다.

	봉의 이서진 분	30대, 남자. 고려 조정의 의원으로써 세심한 성품을 지녔다. 원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인 다루가치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되어, 고려와 원나라간의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쓴다.
	다루가치 임현식 분	40대, 남자. 원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으로 고향이 그리워 향수병을 앓는다. 더 이상의 진료가 도움이 되지 않아 위독할 때, 의원의 다정한 마음씀씀이 덕분에 병에 차도를 보인다. 고려와 원나라의 평화적 관계를 위한 Key를 의원에게 전하는 역할.
	최이 차인표 분	왕인 고종보다도 더 큰 권력을 지녔다. 원나라의 침입에 대비해 강화도로 천도를 주장하나, 실은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함인 이기적 인물. 무신인 자신의 입지를 위해 원나라와의 평화적 해결을 원치 않는다.
	김윤후 조재현 분	처인성에 살고 있던 평범한 승려. 원나라가 침입해오자 왕이 있는 강화도로 피난을 간 귀족들과는 달리 피난도 갈 수 없는 부곡민들과 함께 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살리타이 최성국 분	몽골군의 적장. 원나라의 장수. 원에서 보낸 사신인 다루가치의 형제이다. 평화적 해결을 하고픈 마음을 지니고 있으나, 결국 원나라의 지시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 외 인물들	고종, 시어의(봉의 다음 직급. 부의원), 유승단(문신), 대신들, 통역관 등

8. 시나리오의 간략한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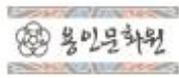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용인시에 살고 있는 18살의 여고생 영희는 절친한 친구 지선이 서울로 이사 가게 됨을 통보받는다. 하나 둘 떠나가는 친구들로 인해 우울해 하는 영희, 불현듯 꾸게 된 꿈에서 고려인 남성과 알 수 없는 어떤 물건을 본 이후,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처인성으로 향한다. 처인성터에 도착한 영희는 그곳에서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유물을 발견하게 되고, 유물을 신고 하기위해 용인시문화원 원장을 만난 영희 일행은 그로부터 용인에 얽힌 한 설화를 듣게 된다.

9. 관련 사료

1. ‘봉의’ 관련된 사료

■ 상약국

고려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의 조제를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시작은 목종 때 태의감과 함께 설치된 상약국(尙藥局)이다. 처음 상약국은 봉어(奉御), 시어의(侍御醫), 직장(直長), 의좌(醫佐)로만 설치되었다. 이후 1310년(충선왕 2) 장의서(掌醫署)로 이름을 고쳤으며, 다시 얼마 뒤에 봉의서로 이름을 바꾸었다. 문종 때 상약국에 둔 관원으로는 봉어(奉御:정6품) 1명, 시의(侍醫:



종6품) 2명, 직장(直長:정7품) 2명, 의좌(醫佐:정9품) 2명 등이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의침사(醫針史) 2명, 약동(藥童) 2명, 서령사(書令史) 2명, 산사(算士) 2명 등이었다. 충선왕 때 봉의 서로 개편하면서 기구를 축소, 영(令:정6품)·직장·의좌만을 두었다. 이후 상의국(尙醫局) 등으로 번갈아 이름을 바꾸다가, 1391년(공양왕 3) 전의시(典醫寺)에 합하였다. 시어의 : 고려 목종 때에 둔 상약국과 상의국에 속한 종육품 벼슬. 문종 때에 시의로 고쳤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 봉의

고려 목종 때에 둔 상약국에 속한 정육품 벼슬. 내의원.

■ 시의

고려 목종 때에 둔 상약국에 속한 종육품 벼슬.
 목종~문종까지는 '시어의' 였으나, 문종 때에 시의로 고쳤다.

2. '다루가치' 관련된 사료

■ 다루가치(達魯花赤)

고려 후기에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설치한 민정(民政) 담당자.

원래 원나라는 중앙의 하급 관부와 지방의 노(路)·부(府)·주(州)·현(縣) 및 복속 국가에 대한 통치방식으로 다루가치를 설치하였다. 1231년(고종 18) 고려는 살리타이[撒禮塔]가 이끄는 몽골군에게 개경이 함락될 위험에 처하자 화친을 제의했는데, 이때 몽골군은 철군하는 대신 서경을 비롯한 서북면 지역에 72명의 다루가치를 설치하였으며, 다음해 도단(都屯)을 개경에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에 대한 고려의 항거는 제2차 몽골 침입의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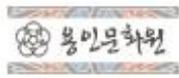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 다루가치관

몽고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던 다루가치가 업무도 보면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한 곳.

3. 고려에서 원까지 왕복 시간, 2달.

■ 빈왕록 참고.

《빈왕록》은 이승휴가 서장관에 임명되어 1273년 원나라 수도 대도(북경)를 다녀온 후 1290년 10월에 편집해 남긴 기록이다. 빈왕록에서는 1273년 당시 6월 홍수가 났을 때도, 개경에서 대원(베이징)까지 한 달 반이면 도착했다고 말한다. 즉 날씨가 좋고 물이 넘치지 않아 강을 쉽게 건넌더라면 1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것이다.



4. 아이락과, 아르히 관련 사료

■ 아이락 [Airag, 마유주, 말젖술]

'아이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유주(馬乳酒)'로 말젖을 발효시켜 만든 몽골의 대표적인 술이다. 몽골인에게 있어서의 아이락은 어쩌면 술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음료에 가깝다. 말젖을 발효시켜 만든 이 순한 음료는 맛이 약간 시며 특히 갈증 해소에 좋다.

말젖을 발효시켜 만든 이 아이락은 몽골인의 실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음료수와 같은 존재로 남녀노소가 같이 식사 때는 물론 여느 때에도 항상 음용하는 그들만의 귀중한 전통 음료이다. 이 아이락은 병든 환자에겐 대용식으로 제공하며 몽골 어린이들에겐 수시로 먹인다. 또한, 몽골에 정복되었던 러시아에서는 몽고풍의 먹을거리 문화를 접하여 결핵환자를 치유하는 보조 음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징기스칸도 한때 적장 주베의 독화살을 목에 맞고 혼수상태로 빠져 이 마유주만으로도 쉽게 치유된 역사가 있다.

마유주에는 단백질, 지방과 비타민 C, 비타민 A, B1 등과 갈슘,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있는 고단백 영양음료 인 것이다. 또한 음용시 모든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현재 몽골은 이 마유주를 전 세계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다.

■ 아르히 (몽골어: архи)

아르히는 몽골제 보드카이다. 술이란 뜻의 일반명사로 알코올 도수는 38도이다. 몽골리안 보드카로 불린다. 아이락을 항아리에 넣고 열을 가하여 증류시켜 항아리 윗부분에서 응집되어 떨어지는 맑은 독주를 모아서 만든 술이 '네르멜' 또는 '아르히'이다. 경상도 방언에 소주를 빚고 난 술지꺼기를 아래기라고 하는데 이는 몽골의 소주 아르히에서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5. 몽골의 가죽 물통

■ 가죽 물통



몽골의 전통 공예품. 공예품이지만 현실에서 항상 쓰이고 있다.

덧붙임 : 지금처럼 물병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재료가 없던 시대이기에 때문에 생활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양가죽이었기 때문이다. 양가죽 물병은 가죽의 구멍이 미세하고 장력 때문에 물이 새지 않는다. 또한 사막이동시에 휴대가 간편하고 신축성이 있으며 파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물통은 가죽 틈새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면서 증발하고, 스며 나온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에 흩날려 행된다. 흡열반응은 주변의 더운 공기를 흡수하는 역할로 인해 주변의 온도를 내리게 되므로 양가죽 물통 속의 물은 시원하다.

6. 유승단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고려 시대의 문신. 참지정사로 재직 시에 진양공 최이의 주도로 강화도 천도에 대한 논의가 일었고, 문안공 유승단은 홀로 ‘종사를 버리고 구차하게 숨어 세월을 보내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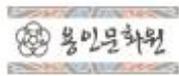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출처 : 이제현, 역옹패설

※ 이외에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공식 카페’ 자료 참조.

10. 드라마 타이틀 예시



※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였음.



조이름: 수요일789 / 조원: 박진석, 강지선

- 2010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드라마 시나리오' 기획안 -

< 시놉시스 >

1. 제목

처인설화 ,진실은 정(情) 너머에

2. 주제

전쟁은 인간의 야만성이 폭발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고귀한 인간성의 발현을 보게 된다.

3. 집필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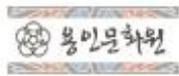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처인성 부곡민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는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기 마련이다. 전쟁 통해 남편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김윤후를 위해 희생하는 한 부곡민의 이야기라던가 하는 것들 말이다. 게다가 그들이 겪은 전쟁과 드라마틱한 승리가 이미 처인성 이야기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만큼, 창의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터였다.

이러한 난점을 타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설정을 대입시켜 보았다. 하나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담아 처인성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동시에 제시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부곡민들이라는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를 구성해 보자는 것이다.

첫 번째 설정은 영희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구현된다. 영희는 처인성에서의 짧은 여행을 통해 (마치 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이) 과거의 처인성을 그려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시나리오는 '꿈'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로 과거와의 연결성을 부여하였으며, 유물을 발견하고 원장을 만나 한 설화를 듣는 구조를 통해 과거의 처인성과 영희로 대표되는 현대의 용인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설정은 처인성 전투가 있기 이전, 강화경 천도 이전의 고려의원과 몽골에서 파견된 다루가치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풀어보았다. 처인성 전투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평화적인 해결을 원했던 당시의 고려인과 몽골사람이라는 설정은 하나의 이야기로서 충분한 흡입력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이야기구조를 기획하게 된 또 한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는, 처인성 축제를 방문했을 당시 몽고인들과 용인시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장황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직접 체험한 처인성을 하나의 창조적인 이야기로 풀어보 고자 한 것이 집필의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 승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처인성은, 지금은 스러져 그 위용을 느끼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바람과 청명한 주변 풍경을 통해 그 곳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묘한 감정을 자아냈다. 또한 어디에서도 친절한(실제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용인 사람들에게서 느낀 편안함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사는 이 시나리오의 집필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드문 따듯함 이었다.



만약 이 작품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일말이나마 구현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능력 밖의 일을 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등장인물

영희	18세, 고등학생, 활기차고 생각이 깊은 소녀이다. 서울로 하나 둘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지만 짧은 처인성 여행을 통해 용인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인물
할아버지	70대 노인, 용인시 토박이로서 애향심이 강하고, 용인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영희를 처인성으로 이끄는 인물.
용인문화원 원장	52세, 남자, 용인시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용인문화원의 원장. 영희가 가져온 유물에 얽힌 ‘처인설화’를 전달해주는 인물.
지선	18세, 고등학생, 서울로 이사를 떠나는 영희의 친한 친구이다.
의원(봉의)	30대 남자, 고려 조정의 의원으로써 세심한 성품을 지녔다. 원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인 다루가치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되며, 이후 고려와 원나라간의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쓴다.
다루가치	40대 남자, 원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으로 병을 앓게 되는 인물. 고려 의원의 도움으로 병을 회복하고 우정을 나누게 된다.
최이	고려의 무신. 왕인 고종보다도 더 큰 권력을 지녔다. 원나라의 침입에 대비해 강화도로 천도를 주장하나, 실은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함인 이기적 인물.
그 밖에	김윤후, 살리타이, 고종, 부의원(시의), 유승단(문신), 대신들, 통역관 등등

5. 전체 줄거리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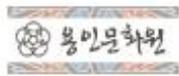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얼마 전 친구 인숙을 떠나보낸 영희는 곧 또 다른 절친 지선이 마저 서울로 이사 간다는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한다.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는데, 이때 고려인 남성과 자신의 손에 쥐어 어떤 물건을 본다. (‘처인설화’에 대한 암시)

6~12

영희는 가족들에게 지선도 서울로 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생각에 잠긴 할아버지는 자신과 나들이를 떠나자는 제안을 하며 영희를 처인성으로 인도한다.

처인성터에 도착한 할아버지와 영희는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유물 하나를 발견한다.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물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낀 영희는 기이하게 여긴다.

13~17



유물을 발견하게 된 것을 신고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영희 일행은 헛걸음을 하지만 용인문화원 원장과 연락이 닿아 그를 만나게 되고 원장은 유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이후 원장의 연락으로 다시 문화원을 방문한 일행은, 발견한 유물이 몽골의 수통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원 원장은 몽골의 수통과 연관된 처인성의 설화를 기억했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설화) 18~22

고려조정에서 ‘봉의’를 맡고 있는 의원은 다루가치의 건강을 살피라는 조정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루가치의 병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조정은 그러는 와중 고려의 문신 최이의 강화경 천도 개획으로 어수선 하다. 이때 의원은 다루가치의 건강을 호전시킬 비책을 생각하여 원나라로 하인을 보낸다.

#(설화) 23~31

최이의 계획은 서서히 구체화 되어 강화경 천도의 날이 멀지 않게 된다. 반면 다루가치의 병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의원은 원나라에 다녀온 하인을 통해 새로운 약재인 ‘아이락(마유주)’을 공수 받게 되고 이를 ‘아르히(몽골식 소주)’로 제조하여 다루가치에게 올린다. 병마와 함께 지독한 향수병을 느꼈던 다루가치는 감동을 받게 되고, 의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설화) 32~37

유승단을 비롯한 문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화경 천도는 고종의 승낙을 얻게 된다. 한편 의원의 처방으로 놀랍도록 건강을 회복한 다루가치는 의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인 몽골인들의 물병을 선물한다.

#(설화) 38~46

강화경 천도는 결국 실행에 옮겨지고 다루가치는 고려 무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때 그가 전쟁을 막기 위해 보내려던 서신은 발송되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되고, 이 서신을 발견한 의원은 자신이 그 서신을 발송하고자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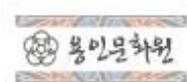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설화) 47~50

강화경에 있던 의원은 처인성에서 벌어지게 될 전투를 인지하고 김윤후에게 다루가치의 서신과 평화의 증표인 물통을 보내게 된다. 전쟁을 준비하던 김윤후는 의원이 보낸 물건을 받게 되고 적장인 살리타이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둘의 조우가 이루어진다.

김윤후가 꺼내든 증표와 서신을 본 살리타이는 전쟁에서 물러날 것을 생각하나 부하들에 의해 저지당하게 되고, 결국 이 설화는 전쟁을 막지 못한 비극적인 전개로 마무리 된다.

51~54 (Finn)

설화를 들은 영희와 할아버지, 감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다. 잠을 청하기 위해 잠자리에 누운 영희는 꿈속에서 의원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나리오
수요일 789 / 박진석, 강지선

< 처인설화, 진실은 정(情) 너머에 >

#1. 영희의 학교, / 토요일

영희네 반 교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린다.
토요일 방과 후의 왁자지껄한 분위기.
영희와 지선은 한 책상에 나란히 앉아 있다.
가방을 정리하며 다른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영희.
반면 영희의 짝인 지선은 왠지 어두운 표정이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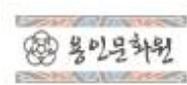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영희: (지선에게) 무슨 일 있어? 오늘 완전 싸하네.
지선: (조금은 당황한 듯한) 응? 아, 나 괜찮은데?
영희: 괜찮긴, 무슨 일인데? 말해봐, 말해봐!
지선: 무슨 말을 하니? 아무 일도 없어. 어제 늦게 자서 좀 그런가보다.
영희: 치, 말하기 싫으면 말아라~ (고개를 돌린다)
지선: 아무 일 없다니깐.....

곧 담임선생님이 종례를 위해 들어온다.
비교적 조용해지는 교실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되며 영희와 지선은 이를 경청한다.

#2. 귀가길 / 낮

학교에서 나와 함께 귀가하고 있는 두 사람.
나란히 걷고 있다.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닌다.
지선과 걸으며 신나게 떠들고 있는 영희

영희: 그 색깔을 꼭 사고 싶은데 또 그것만 품절인거야, 저번에도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른 색깔도 못 샀잖아! 짜증 대박이야 진짜



어색하게 웃는 지선, 갑자기 영희의 말을 끊는다.

지선: 근데 영희야.

영희: (갑자기 말을 중단하며) 응?

지선: 나 할 말 있어.

영희: 야, 넌 아까 하라고 할 때는 안하고, 무슨 일이야? 이 언니가 다 들어줄게!

지선: 나..... 곧 이사가.

영희: 응? 이사? 어디로 가는데? 왜 갑자기 이사야?

지선: 갑작기는 아니고, 부모님 일 때문에 가게 됐어..... 서울로 가.

서울이라는 단어에 멈칫하는 지선. 표정이 어두워진다.

영희: (어색한 표정으로) 뭐야, 너도 서울로 가는 거야?

지선: 그렇지 뭐..... 가깝잖아? 서울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주 놀러올게.

잠시 침묵이 흐른다.

영희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다.

지선: 미안.

고개를 들고 표정을 정리하는 영희

영희: 아냐, 이제는 익숙한데 뭘! (애써 웃으며) 지난번에 인숙이 갈 때만 해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젠 견딜 만 한 것 같아!

지선: 뭐야, 내가 가는 건 괜찮다는 거니?

영희: 그런 게 아니고. 야, 네가 지금 나한테 핀잔줄 때니?

지선: 그래도 섭하다 야.

영희: 섭하면 가지마라 뭐.

어색한 미소를 짓는 두 사람

#3. 영희네 집 / 귀가 시간

시무룩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영희

거실에서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다.

영희: (문을 닫으며)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 영희 왔구나. 학교 잘 다녀왔니?

영희: 네.



힘없이 신발을 벗는 영희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할아버지.

할아버지: 영희 무슨 일 있니? 우리 손녀가 공부하기 많이 힘들구나?
영희: (조용히 방으로 향하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얼굴이 된 할아버지.
이때 안방에서 나오는 영희어머니.

영희어머니: 영희 왔니?
영희: (방으로 들어가며) 네.
할아버지: 영희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구나.
영희어머니: 네.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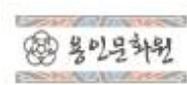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4. 영희의 방 / 오후

방문을 닫는 영희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자신의 침대로 몸을 던진다.
옆드려 누워 있는 영희
무심하게 핸드폰을 만진다.
관심이 없어진 듯 핸드폰을 힘없이 내려놓은 영희
잠시 생각에 잠기며, 이내 눈을 감는다.
잠이 드는 영희.

꿈_#5. 영희의 꿈속, 처인성

화창한 햇볕에 눈을 찡그리는 영희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는다.
천천히 주변을 걷는 영희
주변을 둘러보니 낮은 언덕위에 올라와 있다. 주변은 나무와 숲으로 우거져있다.
이때 한 남자가 보인다.
남자는 고려시대의 복장을 하고 있으며, 푸근한 표정으로 웃고 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따듯함을 느끼는 영희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음을 느낀다.
손을 펴보는 영희
알 수 없는 용도의 물건이다.

#6. 영희 방 / 저녁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영희.
영희어머니가 곁에 와있다.

영희어머니: (영희를 가볍게 흔들며) 영희야, 일어나야지.
영희: (뒤척이며).....응?
영희어머니: 영희야 일어나, 저녁밥먹자.
영희: (눈을 비빈다.) 응 응, 일어났어.
영희어머니: (웃으며) 너 잠꼬대도 하더라. 빨리 나와.
영희어머니는 먼저 나간다.
뒤척이며 힘겹게 일어나는 영희. 멍한 표정이다.
곧 방 밖으로 나간다.

#7. 영희 집 / 저녁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영희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걱정스런 눈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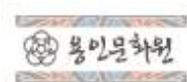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할아버지: 영희가 오늘 영 기분이 안 좋구나?
영희:.....(말이 없는 영희)
영희어머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영희: 아니에요.
영희어머니: 에이, 얘기해봐. 할아버지랑 엄마가 들어줄게. 응?
영희: (한숨을 쉬며) 지선이도 이사 간대요. 서울로.
영희어머니: 응? 지선이도 서울로 간대?
할아버지: 음.....
영희어머니: 인숙이간지도 얼마 안됐는데, 지선이도 가는구나.
영희: 그렇게 말이에요.....

하릴없이 밥을 뒤적이는 영희, 어머니도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둘을 말없이 바라보는 할아버지.

#8. 영희 방 / 밤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영희.

(E): 똑똑
영희: 네.



문이 살짝 열린다.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 영희 공부하니? 미안하구나.

영희: (살짝 웃으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래, 영희 내일 바쁘니? 할아버지가 영희랑 같이 어디쯤 다녀올까 하는데.

영희: 내일요? 내일 오전에 도서관 가려고 했는데, 어디 가는데요?

할아버지: 좋은 곳이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곳이야.

영희: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곳?

할아버지: 그래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오후쯤에는 집에 올 수 있을 텐데. 같이 다녀오자 영희야. 오랜만에 우리 영희랑 같이 주말 나들이를 하고 싶구나.

영희: (머뭇거리며) 음..... 내일 아침이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랑 맛있는 것도 먹고.

이때, 거실에 있던 영희어머니, 영희에게

영희어머니: 다녀오렴 영희야. 너 어렸을 때 네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니? 할아버지가 너 데리고 동네방네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데, (웃음) 다녀와.

할아버지: (웃으며) 그래 영희야, 이번엔 이 할아버지가 부탁하마.

영희: (마지못해) 치, 알았어요. 근데 진짜 어디로 가는데요?

할아버지: 그냥 나들이 가는 거야.

#9. 버스 / 아침

버스에 오른 두 사람.

한창 달리고 있는 중, 승객은 영희와 할아버지뿐이다.

영희: 이쪽으로는 갈 데가 없는데..... 할아버지,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할아버지: (웃으며) 그럼, 할아버지가 걱정되는구나? 확실하니까 걱정 말거라.

영희: 근데 진짜 어디로 가요?

할아버지: 곧 알게 될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렴.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기사에게 다가가는 할아버지

영희는 달리는 차에서 거동하시는 할아버지를 염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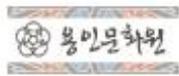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할아버지: 기사양반, 처인성 주변에서 세워주구려.

버스기사: 네? 어디요?

할아버지: 처인성, 처인성 주변에서 세워주게.

버스기사: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처인성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버스기사에게 처인성의 위치를 이야기해준다.



이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영희, 이상하게 여기며 창밖을 내다본다.
전형적인 가을의 풍경이 펼쳐져있다.

#10. 처인성터 / 오전

인적이 드문 한적한 장소.

시골에나 있을 법한 오래된 버스정류장이 언덕(처인성)을 등지고 덩그러니 있다.

그곳에 정차하는 버스, 영희와 할아버지가 내린다.

버스기사에게 인사하는 영희와 할아버지, 버스는 떠난다.

꽤 오랜 시간 버스를 타서인지 조금은 지쳐 보이는 영희, 기지개를 켜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눈에 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영희: (하품을 하며) 할아버지, 여기 맞아요?

할아버지: 그럼. 정확히 찾아왔단다.

영희: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아버지: (미소를 띠며) 그런 것 같니? 이쪽이다 영희야.

버스 정류장 뒤편 얇은 오르막길로 향하는 할아버지. 영희, 뒤따른다.

이때 처인성 터를 알리는 비석을 발견한 영희.

영희:.....처인성?

할아버지: 그래, 오늘 영희랑 처인성에 오고 싶었는데 맞게 잘 찾아왔지?

영희: 처인성.....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성이에요?

할아버지: 그럼, 처인성은 토성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웃음) 자세한 얘기는 올라가서 해주마.

할아버지, 앞장서서 처인성에 오른다.

두리번거리며 뒤따르는 영희.

시원한 바람이 분다.

#11. 처인성 / 오전

처인성에 오른 영희와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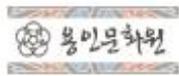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주변에 보이는 것은 성벽과 같이 처인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

내려다보이는 시골풍경뿐이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는 할아버지, 영희도 따라 앉는다.

할아버지: 날씨도 시원하고 아주 좋구나. 어머니 영희야, 좋지 않니?

영희: 글썽요, 조금 심심한 것만 빼면 괜찮은 것 같아요(미소).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할아버지: (웃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기껏해야 풀이나 나무뿐이니까. 그렇지만 처인성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품고 있단다.

영희: 처인성 전투 말씀하시는 거죠? 수업시간에 배워서 알아요. 그렇지만 직접 와보니까 더 잘 모르겠는걸요?

할아버지: 그래, 실제로도 처인성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전투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단다. 하지만 김윤후를 비롯한 용인의 처인성 부곡민들이 몽고군을 물리친 것만은 확실하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영희에게 처인성과 처인성 전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할아버지.

영희는 지루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는 영희.

영희: 할아버지, 잠시 만요.

할아버지: 응? 왜 그러니 영희야?

어디론가 다가가는 영희,

땅 밖에 무언가가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을 꺼내어 보는 영희, 알 수 없는 물건이다.

할아버지: 응? 영희야 그게 뭐니?

영희: 저도 궁금한걸요?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할아버지: (놀라며) 지금 나왔다고? (다가가서 그 물건을 보며) 아니, 지금 여기서 이걸 발견했다는 말이니? 이건..... 아주 오래된 물건 같은데.....

이때, 어제의 꿈을 떠오르는 영희.

꿈속의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물건임을 깨닫는다.

영희: 아..... 이건.....

할아버지: (심각한 표정으로) 음.....?

#12. 용인구청 앞 / 오후

용인 구청에 이른 두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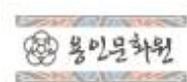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때 영희,

영희: (미소 지으며)아, 바보. 할아버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할아버지: 어이쿠 이런! 일요일에는 사람이 없지? (웃음) 이거, 정신이 없어서 그 생각도 못했구나.

영희: 휴, 괜히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이제 어찌죠?

할아버지: 음..... 그러게 말이다.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이) 아, 혹시.....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과 수첩을 꺼내는 할아버지,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신호가 길게 이어진다.

할아버지: 음.....

전화를 끊으려 하는 할아버지, 이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린다.

문화원원장: 여보세요?

할아버지: 음? 여보세요? 원장님 맞는가?

문화원원장: 아, 영희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할아버지: 그래그래, 나아 여전하지 뭐.

문화원원장: 네, 근데 무슨 일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할아버지: 아, 원장, 지금 시간 좀 괜찮은가?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영희, 닫힌 구청 문을 바라보고 있다.

#13. 용인문화원 사무실 / 오후

용인문화원의 사무실, 작은 공간을 많은 책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책상에 앉아 영희 일행이 가져온 유물을 살피고 있는 문화원 원장, 심각한 표정이다.

할아버지: 일요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하구만.

문화원원장: (미소 띠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영희: 원장님, 그게 어떤 물건인가요?

문화원원장: 음..... 글썸다. 조금 더 조사해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
저나, 영희가 이걸 지금 처인성에서 주웠다고?

영희: 네, 땅속에 뭐가 묻혀 있더라고요. 파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문화원원장: 거참 신기하네,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보지 못했는데..... 게다가 그 주변은 발굴
작업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영희: 얼마 전에 누가 파묻은 골동품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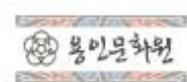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문화원원장: 그럴지도 모르지, 어쨌든 아주 오래된 물건 같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건은 아
닌 것 같고. 마치 무슨 물병 같이 생겼는데.....

할아버지: 아무튼 자네를 만나 다행이구만. 우리가 급해서 일요일인데도 구청에 갔지 뭐가.

문화원원장: 네, 영희한테 들었어요. (웃음) 음.....제가 조금 더 조사해보고 싶은데..... 일
단 여기 문화원에 맡겨놓으시고 조만간 한 번 더 와주시겠어요?

할아버지: 그래, 그게 좋겠구먼. 영희도 괜찮지?

영희: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가) 네.



#14. 영희네 방 / 저녁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희, 들어와 걸옷을 벗어 옷걸이에 건다.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빼는 와중 오늘 원장에게 받은 명함을 본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영희.
이때 지선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지선: 여보세요?

영희: 응, 지선아.

지선: 야, (장난스럽게) 너 왜 내 문자 씹니? 너 나 간다고 이제 막 문자 씹고 그러기야?

영희: (웃음) 야, 좀 못 볼 수도 있지, 이 언니는 항상 바쁘잖니. 그래서 빠졌어?

지선: 아니 너 나 간다고 죽을상을 하기에 걱정돼서 문자했더니 연락이 없잖아. 무슨 일 있나 했지!

영희: 음..... 좀 정신없는 일이 있었어, 미안.

지선: 무슨 일인데? 너 또 나 몰래 뭐하는 거니?

영희: (웃음) 그런 건 아니고. 야, 내가 내일 학교 가서 얘기해줄게. 나 지금 씻어야 돼.

지선: 치, 그래라 그럼! 그럼 내일 학교에서 봐~

영희: 응, 내일봐!

전화를 끊는다.

핸드폰을 닫으며 약간 한숨을 짓는 영희

#15. 학교 / 아침

등교시간의 분주한 교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희.

지선은 먼저 도착해있다.

지선을 잠시 바라보는 영희, 이내 웃는 얼굴로 다가가 지선에게 인사한다.

영희: 지똥(지선의 별명)!

지선: 야, 너 아침부터 지저분하게 그게 뭐니?

영희: (웃으며) 뭐가 지저분해!

지선: 그건 그렇고, 너 어제 일이라는 건 뭐야?

영희: 아, 그게 좀 신기한 경험이랄까?

지선: 신기? 야, 뭔데 뭔데! 빨리 말해봐.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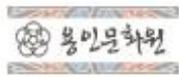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영희: 글썸..... (딴 짓 하는 영희)

지선: 야, 하지마 하지마. 속 터지겠다!

영희: (웃음) 알았어 알았어. 너 처인성 가봤어?

지선: 처인성? 아니 가보지는 않았는데? 너 어제 거기 갔어?

영희: 응 근데, 거기서 무슨 골동품 같은걸 주웠거든. 그래서 문화원에 맡겼어.



지선: 정말? 그거 혹시 비싼 거 아닐까?
영희: 글썸? (웃음) 아, 근데 말이야.....
지선:?
영희: 아, 아니다. 그냥 그랬다고.
지선: (어이없다는 듯이) 야, 너 이럴래?

이때 담임선생님이 들어오며 아침 조례가 시작된다.
지선은 영희를 찌르며 장난을 치고 영희는 웃으며 무마한다.

#16. 교실 / 점심시간

아직은 수업 중, 곧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이들.
영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메시지를 확인한다.
이때 문화원 원장에게 온 문자를 발견한 영희,
원장은 영희에게 괜찮은 시간에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영희 친구들: 영희야 빨리 가자!
영희: (핸드폰을 놓으며) 응, 잠깐만.

가방을 닫고 교실을 나서는 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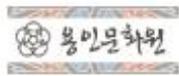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17. 문화원 원장실 / 오후

문화원원장이 책을 읽고 있다.
책상 위에는 영희 일행이 주운 물건이 놓여 있다.

(E): 똑똑
문화원원장: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희와 할아버지,
영희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는 원장
간단히 안부를 나눈 뒤 대화를 시작한다.

문화원원장: 이 물건은 원나라 사람들 즉 몽골인들이 사용하던 수통입니다.
영희: 몽골의 수통.....
할아버지: 흠..... 왜 몽골의 수통이 거기 있었던 건지.....?
문화원원장: 저도 어떻게 그게 왜 거기에 있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영희: 정말로 거기서 주웠어요.



문화원원장: (웃음) 영희를 못 믿는 게 아니란다. 이걸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더 어렵기도 하니까. 이렇게 오래된 수통이라니.....

할아버지: 아무튼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영희 생각에 잠긴다. 꿈에 대한 생각을 하는 듯하다.

영희: 저기.....

문화원원장: (동시에) 아, 말씀드릴게 한 가지 더..... 응?

영희: 아, 별거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문화원원장: 어제 조사를 해보는 와중에, 갑자기 옛 설화 한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할아버지: 설화?

문화원원장: 예, 제가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용인과 관련된 설화에 대해서 연구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처인성과 관련된 설화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 이 수통을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죠. 사실 오늘 두 분을 모신 것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었습니다.

영희: 어떤 설화인데요?

문화원원장: 음..... 간단하게 말하면, 다루가치와 고려봉어의 우정이랄까?

할아버지: (웃으며) 다루가치와 고려의원의 우정이라니, 자세하게 얘기해보게!

영희: 네, 진짜 궁금해요!

문화원원장: (웃음 짓는다)

과거_#18. 고려조정의 다루가치관 , 원의 1차 침입 이후 / 오전

원에서 파견된 다루가치가 기거하는 방.

다루가치는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다.

그 곁에 다루가치의 하인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이때, 문이 열리며 고려의 의원인 봉어, 그리고 그를 보조하는 시어의와 통역관이 들어온다.

목례를 올리는 의원들, 이윽고 진찰을 시작한다.

봉어: 음.....

시어의: (조용하게) 많이 쇠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봉어: 지난번 탕약은 모두 드신 게 맞는가?

시어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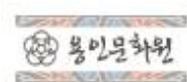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봉어: (통역관에게) 탕약을 모두 드시고 계신 게 맞는지 한번 여쭙보게.

다루가치의 하인에게 말을 전달하는 통역관.

그 말을 들은 하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무언가 대답한다.

통역관: 맞다고 합니다. 믿어도 되는 약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어: 허허, 어찌 그런 말씀을. 염려 말라고 하계. 그리고 조금씩 차도가 보이고 있으니 조금해



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시라고 전하게.

통역관: 예. (하인에게 전달한다.)

신음하는 다루가치, 걱정스러운 표정의 봉어.

과거_#19. 궁 / 오전

다루가치의 거쳐 밖.

방에서 의원일행이 나온다.

봉어는 근심 섞인 표정이다.

시어의: 의원님, 점점 병색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봉어: 음.....

시어의: 왜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봉어: 음? 자네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시어의: 네? 저라면.....

봉어: (미소 지으며) 환자에게 좋은 말이 곧 약이 되는 법일세. 그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위중하니 보다 더 신경 쓰도록 합세.

시어의: 예 의원님.

과거_#20. 어전 / 오전

왕(고종)과 대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

고종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대신들의 말을 듣고 있다.

무신1: 전하. 최근 원나라와의 화친이 풍전등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다 전하.

무신2: 저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나라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이대로 개성에 있다가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전하.

고종: 음.....

다른 신하들 또한 이에 동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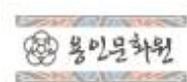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이때, 최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모두가 조용해진다.

최이: 전하,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도로 천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대신들이 저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디 강화도로의 천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종: (잠시 땀을 들이다가)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오.

최이: 전하. 백성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하의 안위이고 또 조정의 안위이옵니다다 전하. 비록 백성들이 지금 당장은 불만을 품을지 모르나, 이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전하.

고종: 음.....

최이는 의지에 찬 표정으로 고종을 바라보고 있다.

애써 외면하는 고종. 근심에 차있다.

과거_#21. 상약국 / 오후

봉어가 기거하는 곳, 몇 가지의 약재와 더불어 많은 서책들이 정갈하게 꽂혀있다.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책을 뒤적이는 봉어.

근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봉어: 음..... 풍토병은 쉬이 낫지 않는 병인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른 듯 한 표정을 짓는 봉어.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봉어: (높은 목소리로) 시어의 거기 있는가?

시어의: 예, 의원님. (상약국로 들어온다) 부르셨습니까?

봉어: 지금 즉시 원나라에 다녀올 사람을 하나 구해주게. 내 긴히 부탁할 일이 있네.

시어의: 네? 원나라로 말입니까?

봉어: 그렇다네. 급하니 어서.

시어의: 예, 의원님.

봉어: 고맙네.

상약국을 나가는 시어의. 봉어는 희망 섞인 표정이다.

과거_#22. 다루가치관 / 며칠이 지난 후, 오전

다루가치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다.

다루가치를 진찰하고 있는 봉어와 시어의.

이때, 통역관을 부르는 다루가치

통역관은 귀 기울여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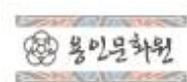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통역관: 봉어님, 저기.....

봉어: 음? 왜 그런가. 어서 말해보게.

통역관: 자신이 언제 죽느냐 물으십니다.

봉어: 음..... 정말 그렇게 물으신 겐가?

통역관: 예.



봉어: (잠시 생각하다가) 지금 위독하시긴 하나 곧 차도가 보일 것이라 말씀드려주게. 그리고 고려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믿어달라고 말씀드려주게.

통역관: 예, 봉어님.

통역관은 다루가치에게 이 말을 전한다.

근심어린 표정을 짓는 봉어와 시어의.

과거_#23. 궁궐 안 / 오전

다루가치의 방에서 나온 봉어 일행.

이때, 상약국의 하인이 봉어를 향해 오고 있다.

하인: 의원님.

봉어: 오 자네, 그래 무슨 일인가?

하인: 지금 어의께서 봉어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어: 그런가? 알겠네. 지금 바로 가도록 합세.

봉어, 어의의 거처로 향한다.

과거_#24. 상약국 어의실 / 오전

근심어린 표정의 어의.

어의는 다른 의원과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때, 봉어가 들어오며 목례를 한다.

다른 의원에게 물러가라고 하는 어의. 봉어를 맞는다.

어의: 자네 왔구먼.

봉어: 예, 어르신. 어떤 일로 찾으셨습니까?

어의: 자네 지금 다루가치의 진료를 마치고 오는 길이지?

봉어: 네. 이제 막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만.

어의: 그래, 상태는 좀 어떤가? 차도가 있는가?

봉어: 그게..... 아직까지는 별다른 차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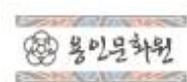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어의: 그렇군. 그럼 위중한 상태인 겐가?

봉어: 네 어르신..... 송구스럽습니다.

어의: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음.....아니야 아니야. 자네를 문책 하고자 묻는 게 아니니 염려 말게나.

봉어: 아닙니다 어르신.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의: (웃으며) 그래, 자네는 참 열심이야. 아무튼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불렀네. 이제 가보도록 하게나.



봉어: 네. 그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봉어, 목례를 하고는 거처를 나선다.
어의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과거_#25. 상약국 / 오후

자신의 자리로 천천히 들어오는 봉어.
근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들고 있던 짐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자리에 앉는 봉어.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긴다.
이때,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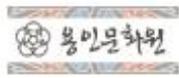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시어의: 의원님,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봉어: (고쳐 앉으며) 들어오게.

시어의가 들어온다.
그는 보따리에 쌓여있는 무언가를 들고 있다.

시어의: 다녀오셨습니까 의원님.
봉어: 그래, 잘 다녀왔네.
시어의: 어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봉어: 아, 다루가치와 관련해서 차도가 좀 있는지 여쭙보셨네.
시어의: 역시 그렇군요. 아, 의원님. 의원님께서 보내신 하인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봉어: 오 그런가?
시어의: (보따리를 건네며) 여기 있습니다.
봉어: 다행이 많이 늦지 않았구먼. 고생했다고 전해주게.
시어의: 예. 그런데 그건 무슨 물건입니까?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봉어: 아, (미소) 조만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걸세

이때 하인이 등장한다.
부탁하신 물건을 가져왔다고 하는 하인
반가운 얼굴을 하는 봉어, 수고했다는 말을 건넨다.
그가 가져온 짐은 보따리에 쌓여 있다
옆에 머물던 시어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봉어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미소를 짓는다.

과거_#26. 상약국 탕약조제실 / 밤



어두운 밤의 조제실
주변은 각종 약재들과 탕약을 조제하는 도구들로 가득하다
달빛을 조명삼아 홀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봉어.
한쪽에는 불이 지펴져 있고 무언가 끓고 있다.
봉어는 다가가 부채질로 불을 지핀다.
열중한 표정의 봉어.

과거_#27. 다루가치관 / 다음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봉어와 시어의 그리고 통역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다루가치.
봉어는 다루가치의 팔을 건어 진맥을 살핀다.
이때, 다루가치는 하인을 불러 몇 마디의 말을 한다.
그 말을 통역관에게 전달하는 하인.

통역관: 봉어님, 다루가치께서 이제 됐으니 나가보라고 하십니다.
봉어: (짐짓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인가? 아직 진료가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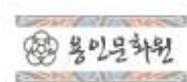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이를 전달하는 통역관.
다루가치는 다시 하인을 통해 몇 마디의 말을 전한다.

통역관: 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어: (진료를 멈추고는) 그런가? 음..... 그럼 가기 전에 오늘 드셔야하는 약을 드리겠네. 시어의, 지금 꺼내주게.
시어의: 예, 봉어님. (약을 전달하며) 여기 있습니다.

봉어는 약을 받아든다.
이때 다루가치가 직접 통역관을 통해 말을 건넨다.

통역관: 봉어님..... 약도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봉어: 그런가? 그럼 이번 약은 조금 특별한 약이니 꼭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게. (하는 즉시) 아니네. 내가 직접 약을 드리겠네.

봉어는 하인을 시켜 다루가치를 조금 일으킨 다음,
자신이 준비해온 탕약을 내민다.
불편한 표정의 다루가치.
그러나 곧 봉어가 내민 탕약을 보고 매우 놀란다.
잊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되찾은 양 표정이 변하는 다루가치
봉어가 내민 약을 천천히 들이킨다.



보고 있던 하인도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시어의: (작은 목소리로) 의원님. 어떤 탕약이 길래 저리 좋아하는 겁니까?

봉어: (미소를 띠며) 곧 얘기해줍세.

순식간에 한 사발의 약을 비운 다루가치.

아쉬운 듯 사발을 들여다보며 감상에 젖는다.

곁에 있는 하인은 부러운 눈빛을 던지고 있다.

봉어: 통역관. 다루가치에게 원나라의 좋은 약재를 처방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해주게.

통역관: (어리둥절해 하며) 예, 알겠습니다.

봉어의 말을 전하는 통역관.

이때, 다루가치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모두는 당황해 한다.

그 순간 가까스로 어떤 말을 내뱉는 다루가치

통역관: 봉어님. 다루가치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봉어,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과거_#28. 최이의 거처 / 오전

으리으리한 최이의 집.

최이의 방에 최이를 비롯한 소수의 대신들이 모여 있다.

최이: 하하하. 자네들이 이렇게 애써주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만.

무신1: 아닙니다 장군. 이 모든 것이 다 장군 덕분입니다.

무신2: 맞습니다! 장군이 계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저희 여기 있었겠습니까?

최이: 그래그래. 내가 잘돼야 자네들도 잘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하하. 그나저나.....

이제 강화경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았구먼그래. 곧 우리 세상이 열릴 것이야.

이때 어의가 방문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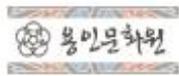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하인: 장군님. 어의께서 오셨습니다.

최이: 그래, 들라하게.

하인이 문을 열어준다.

어의, 방으로 들어오며 목례를 한다.

어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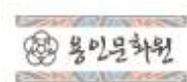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최이: 아니네, 앉게나. (어의가 자리에 앉은 후) 그래 어떻게 되가는가?
어의: 병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봉어 말로는 차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합니다.
최이: 그렇군, 허허, 이거 좋은 구실이 또 하나 생겼구먼.
어의: 예, 장군. 아마도 이곳에서는 고치기 어려운 병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최이: 그래, 우리가 죽이기 전에 직접 죽어준다면야 명분 또한 얻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걸 보니. 하늘도 우리의 편인가비. 하하하.

다른 무신들도 모두 이에 동조하며 호탕하게 웃는다.
반면, 어의는 다소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과거_#29. 상약국 / 오전

다루가치의 진료를 마치고 들어오는 두 사람.
봉어는 매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반면 시어의는 호기심에 찬 표정이다.

시어의: 의원님! 이제는 말씀해주십시오. 정말 궁금합니다!
봉어: (웃으며)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시어의: 그럼 아니 그럴겠습니까? 대체 그 탕약은 무엇입니까?
봉어: 그래, 이젠 그만 애태우고 얘기해 주도록 하지. 사실 그건 약이 아니네.
시어의: 약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입니까?
봉어: 자네, 냄새를 맡아보았는데도 눈치 못 챘는가? 그건 술이네.
시어의: 물론 술 냄새라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의원님께서 술을 처방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봉어: (웃으며) 아, 그럴 수 있겠구먼. 어찌됐건 그건 술이 맞다네. 원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지.
시어의: 그렇다면 그게 바로 원나라 사람들이 마신다는 마유주(馬乳酒)이군요!
봉어: 잘 알고 있구만! 물론 내가 처방한 것은 조금 다른 것이지만.
시어의: 예? 다른 것이라고요?
봉어: 그렇다네. 정확히 말하면 '증류주'이지.
시어의: 네? 증류주라니요?
봉어: 마유주를 항아리에 넣고 열을 가하여 증류시키면 항아리 윗부분에 맑은 독주가 응집되는데, 이를 모으면 깨끗한 증류주를 얻을 수 있지. 주로 마유주 자체를 마시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고 들어 한번 시도해 보았네. 지금의 다루가치에게는 이게 더 맞을 걸세.
시어의: (놀라며) 그렇군요! 그나저나 왜 이 마유주를 처방하신 건가요?
봉어: 처음엔 그저 향수병을 달래주고자 하는 의도였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을 조금이라도 치료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런데 사람을 보내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이 마유주와 여기서 나온 증류주는, 원나라 사람들에게 약으로 처방될 만큼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더군.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네. 뭐,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말일세. 그나저나 술을 만드는 건 처음이었는데..... 잘 한 건지 모르겠군. (웃음)
시어의: (존경어린 눈초리로) 의원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봉어: 무슨 그런 소릴 하는가? 환자의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효과를 보기를 바랄



뿐이네.

존경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시어의.
봉어는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눈초리이다.

과거_#30. 다루가치관 / 오후

침상에 앉아있는 다루가치.
하인은 다시 누울 것을 권유하지만 사양한다.
그는 봉어가 놓고 간 마유주, 그리고 그가 만든 술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에 잠기는 다루가치.

과거_#31. 다루가치관 / 다음날 오전

또 다시 다루가치의 진료를 위해 방문한 봉어와 시어의.
문을 열고 다루가치를 향해 걸어 들어오는 와중 일어서 있는 다루가치를 보고 깜짝 놀란다.
곁에 있는 하인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으며,
다루가치는 일어나서 봉어를 맞이하고 있다.

봉어: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통역관에게) 이보게, 어서 다루가치를 눕히도록 하인에게 전달하게!

통역관관은 이를 전달한다.
말을 전하려는 하인.
이때 다루가치는 하인의 말을 가로막으며 일행에게 가까이 와줄 것을 부탁한다.
봉어 일행은 다가와 머리를 조아린다.
통역관에게 말을 전달하는 다루가치

통역관관: 봉어님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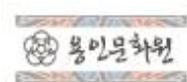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봉어: 그건 감사하네만, 지금 일어서계실 때가 아니라고 전하게. 아직 위중하시니 쉬셔야 된다고.

말을 전달하는 통역관관.
다루가치는 이 말을 듣고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는 다시 말을 전한다.

통역관관: 잘 알겠다고. 편히 쉬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봉어: 다행이네 그려. 어쨌든 일어나신 것을 보니 조금이나마 좋아지신 것 같구먼.

이때 봉어에게 다가가 다시 한 번 몽골의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다루가치.



통역관이 이를 전달해 주자 봉어는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윽고 다루가치는 침상으로 향한다.

시어의: 이게 다 의원님께서 만드신 술 덕분입니다.
봉어: 어허. 이거 누가 들으면 오해할까봐 겁나는구먼. 입조심하게.
시어의: (미소 짓는다)

과거_#32. 어전 / 오전

왕과 대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가운데 위치한 고종은 근심에 찬 표정을 짓고 있으며
이를 사이에 둔, 최이를 중심으로 한 무신들과
유승단이 중심이 된 문신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유승단: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강화경 천도는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옵니다! 원나라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성을 떠나게 된다면 이곳에 남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옵니다!

고종: 음..... 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만.....

최이: 전하!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능한 작자의 생각입니다! 아뢰신바와 같이 원나라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개성에 있는 고려의 조정은 풍전등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하!

고종: 음..... (곤란한 표정이다)

유승단: 전하!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은 백성입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개성의 백성들을 오랑캐들의 말발굽 아래 놓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최이: (흥분하며) 허허! 전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네 혹시 원나라와 내통한 깐가!?

유승단: (놀라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무신1: 유승단을 비롯한 몇몇 문신들이 수상쩍습니다. 혹시 다루가치와 내통이라도 하셨소?

문신1: 말씀이 지나치시오!! 어서 그 말씀 거두지시지 못하겠소!!

무신2: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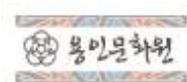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문신2: 뭐요!?!?

고종: (황급히) 조용들 하시게!

조용해진다.

유승단과 문신들은 화를 억누르고 있다.

과거_#33. 왕실 / 오전



자리를 피해 대전으로 이동한 고종.
방에는 왕비가 자리하고 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그는 근심에 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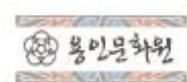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왕비: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고종: 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왕비: 강화경 천도 말씀입니까?
고종: 그렇소. 짐은 유승단을 비롯한 문신들과 같은 생각인데.....
왕비: 그렇다면 지금 천도를 하지 않으시겠단 말씀입니까? 최장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종: 아니, 그럼 중전은, 그가 무서우니 천도를 하자는 말인가?
왕비: 전하, 최장군을 비롯한 무신들이 조정의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종: 음.....
왕비: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지금 저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선 최장군의 말을 따르고 훗날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종: (한숨을 쉬며) 거참.....

고종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긴다.
불안한 표정을 짓는 왕비

과거_#34. 상약국 / 다음날 아침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고 있는 봉어,
이때 허겁지겁 들어오는 시어의.

시어의: 의원님! 의원님!
봉어: (놀라며)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고, 무슨 일인가?
시어의: 의원님, 소문 들으셨습니까?
봉어: 무슨 소문 말인가?
시어의: 왕께서 강화도로 천도할 것이라 합니다!
봉어: 정말인가? 누가 그러던가?
시어의: 오늘 아침 어전에 머물렀던 궁녀를 통해 들었습니다!
봉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있었네만..... 다루가치의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 게지?
시어의: 예..... 그런 듯하옵니다.
봉어: (근심어린 표정) 그런가..... 어쨌든 큰일일세.....
시어의: 다루가치는 천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봉어: 음..... 곧 가보면 알게 되겠지. 어서 준비하세나.
시어의: 예.



과거_#35. 다루가치관 / 오전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 일행.
다루가치는 침상에 앉아 진료를 받고 있다.
이전보다 훨씬 온화한 얼굴이다.
이때 다루가치, 통역관에게 말을 건넨다.

통역관: 봉어님, 다루가치께서 강화도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십니다.

의원일행, 멍칫 한다.

봉어: 아직 소문에 불과합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통역관의 말을 전해들은 다루가치, 근심어린 표정을 짓더니 또 다시 말을 전달한다.

통역관: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면 원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십니다.

봉어와 시어의, 당혹스러워한다.
이때,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시작하는 봉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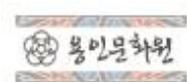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봉어: 통역관,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길 바라네. (잠시 땀을 들인 뒤) 다루가치님, 지금 고려 조정은 무신들의 권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강화도 천도 사건 또한 저희 폐하를 비롯한 수많은 대신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들의 힘에 의해 내려진 결정인 듯싶습니다. 비천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하오나, 부디 고려 조정의 현 상황을 참작하시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봉어는 머리를 조아린다.
시어익는 봉어의 곁에서 황급히 따라한다.
통역관은 이 말을 전달하고 다루가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다.

과거_#36. 최이의 거처 / 밤

최이를 비롯한 많은 무신들이 모여 있다.
상석에 위치한 최이는 흥분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다른 무신들 또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눈치다.

무신1: 천도가 머지않으니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입니다 장군!
무신2: 맞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희 무신들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최이: (정색하며) 허허, 이 사람! 입조심하게! 이 나라는 어디까지나 백성들, 그리고 왕의 것이야.

무신2: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장군.....

최이: 물론, 왕도 백성들도 다 내 손아귀에 있지만..... 하하하!
(일동 웃는다)

최이: (나지막이 혼잣말로) 그래, 곧 최씨 가문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지.....

과거_#37. 다루가치관 / 며칠 뒤, 오전

어느 때처럼 봉어의 진료를 받는 다루가치
다루가치는 병에서 크게 호전된 것은 아니나 놀랄 만큼 좋아져 있다.
하지만 봉어는 강화도 천도로 인해 근심이 쌓여있는 표정이다.
이때 자신의 하인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하는 다루가치.
그런 뒤 통역관을 통해 말을 전달한다.

통역관: 봉어님, 다루가치께서 봉어님께 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봉어: (놀라며) 음? 나에게 말인가?

다루가치의 하인, 무언가를 들고 와 다루가치에게 건넨다.
그것을 받아든 다루가치, 천천히 일어나 봉어에게 다가간다.
봉어, 당황하며 머리를 조아린다.
다루가치는 물건을 봉어에게 내민다.
물건을 바라보는 봉어, 처음 보는 물건이다.
어서 받아 들라는 몸짓을 하는 다루가치.
봉어는 황급히 그것을 받아들인다.

통역관: 봉어님, 그것은 원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사용하는 수통이라고 하옵니다.

봉어: 수통? 그런데 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

통역관과 다루가치가 이야기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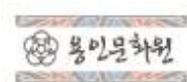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통역관: 봉어님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자, 우정의 표시라고 하십니다.

봉어: (당황해 하며) 갑작스럽게 무슨..... 그리고 우정이라니, 어떻게 다루가치님과 내가 우정을 나눴단 말인가?

이때, 다루가치는 다가와 봉어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그리고는 원나라의 말로 봉어에게 말 건넨다.

통역관: 원나라 사람들에게 수통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문양은,



원나라의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가문의 문양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봉어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에 깊이 감명을 받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봉어는 여전히 당황하고 있다.
시어의 역시 머릿속이 복잡하다.

통역관: 아울러, 자신이 강화경 천도에 대해서 잘 대처할 것이니 크게 염려 말라고 하십니다.
봉어: 아..... (이제야 웃음을 짓는다)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다루가치,
의원일행 역시 기분 좋은 웃음을 짓고 있다.

과거_#38. 어전 / 같은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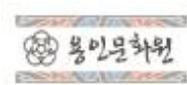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엄숙한 분위기.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다.
이때, 고종이 걸어 들어오며 모두들 고개를 조아린다.
천천히 자리에 앉는 고종,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
긴장한 표정의 대신들.

고종: 강화도로 떠날 준비들을 하시오. 천도를 실행하겠소.

일동 술렁인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최이 그리고 무신들.
이때 유승단, 일어선다.

유승단: 전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부디 한 번 더 헤아려주시옵소서!
고종: (곤란한 표정으로) 음..... 나라가 온전해야 백성들도 온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이제 논쟁은 그만 두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때이오.
유승단: 이번 천도는 조정의 안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하!
최이: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럼 무엇 때문이란 말이오!
유승단: 그건 최장군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오!
최이: 지금 나를 옥보이는 것이오!? 전하, 유승단은 고려 조정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봐라! 어서 저놈을 끌고 가라!
유승단: 어찌 전하 앞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최이: 닥쳐라!

무신 둘이 달려가 유승단의 양 팔을 옥죄다.
거부의 몸부림을 치는 유승단, 다른 문신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괴로운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고종.
저항하는 유승단을 끌고 간다.



최이는 모든 것을 이룬 듯하다.

과거_#39. 상약국 / 오후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일행.
봉어 일행의 표정이 밝다.
시어의가 능청스럽게 말을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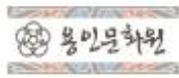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시어의: 의원님. 이참에 외교 사절로 업종변경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봉어: 허허, 자네 무슨 또 그런 소리 하는가? 어서 봉의가 되고 싶어 그러는가?
시어의: (황급히) 아닙니다! 전 단지 고려 조정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어: (웃음) 난 그저 사람을 낫게 하는 이 일이 좋네. 그러니 자네도 판생각 말게.
시어의: 와 역시 의원님은 다르십니다! 의원님께서 곧 어의가 되신다면 폐하의 안위는 걱정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봉어: 허허, 이사람 입에 바른 소리는! 무슨 어의인가? 큰일 날 소리!
시어의: 하하하

봉어, 손에 진 다루가치의 선물을 바라본다.
얼굴에 미소를 띤다.

과거_#40. 다루가치관 / 밤

어두운 방.
다루가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다.
작은 등잔하나가 밝혀져 있다.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 서신을 쓰고 있는 다루가치.
곧 서신을 다 적은 듯, 봉투에 넣는다.
다시 서랍을 열어 그곳에 넣는다.
불을 끄는 다루가치.

잠시 뒤,
다루가치 관으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하인은 순간,
다가온 그림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다루가치의 방문을 살며시 여는 그들.
다루가치는 침대에 누워있다.
천천히 다가가는 자객들.
다루가치를 에워싼다.



과거_#41. 최이의 거처 / 밤

등잔 몇 개만이 불을 밝히고 있는, 어두운 최이의 방.
야심한 시각임에도 모든 무신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모두 엄숙한 표정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이때, 어두운 복장의 한 사내가 들어온다.

최이: 그래, 일은 잘 처리 했는가?

(어두운 복장의 사내, 끄덕인다)

최이: 그렇군. 수고했다고 전하라.

(가볍게 목례하고는 퇴장한다)

무신1: 장군. 마지막 채비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신2: 그런데 장군. 다루가치를 죽인 것이 잘한 일일까요? 그를 보내주었다면 당장의 전쟁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최이: 허허 이사람. 어떻게 되든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네. 우리가 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야. 다만 우리는 강화도에서 안전하게 피신하면 되는 것이지.

무신2: 예.....

최이: 자, 이제 내일이다. 식솔들에게 잘 알려두어라.

무신 일동: 예.

과거_#42. 봉어의 침실 / 밤

봉어가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다.

곤히 잠든 모습.

침상의 한편에 다루가치가 준 물통이 걸려있다.

평화로운 표정의 봉어.

과거_#43. 상약국 / 다음날 아침

봉어와 시어의는 진료 준비에 분주하다.

여느 때처럼 탕약을 조제하고 있는 시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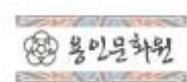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봉어는 서책을 살펴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다.

이때, 무거운 표정의 어의가 들어온다.

어의: 자네들 있는가?

봉어: (황급히 인사하며) 어의님, 이 시간에 어떤 일로.....

어의: 자, 모두들 듣게.



시어익는 황급히 일어서 봉어 옆에 선다.

어익: 지금 이시간부로 떠날 준비를 하거나. 우리는 강화도로 갈 것이네!

봉어: 예? 지금 말씀입니까?

어익: 그러네. 강화도로 천도한다는 어명이 내려졌어.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주게!

봉어: 이렇게 갑자기..... 어익님, 그럼 다루가치만 잠깐 뵙고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익: (표정이 어두워지며) 음..... 그럴 필요 없네. 어서 준비하시게.

봉어: 잠깐이면 됩니다 어르신. 진료도 아니고 인사만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어익: 음..... 자네에겐 안된 일이지만, 그럴 수가 없네.

봉어: 예? 그럴 수가 없다니요?

어익: 다루가치는 이미 이곳에 없다는 말일세.

봉어: 어제만 해도 진료를 했었는데..... 그세 떠났단 말씀이십니까?

어익: 애쓴 자네에겐 미안하게 됐구먼..... 어쨌든 이럴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준비하게나.

어익는 수행원과 함께 신속히 퇴장한다.

시어익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나,

봉어는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사로잡힌 얼굴이다.

시어익: 의원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서 준비하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봉어: (갑자기) 자네! 미안하지만 내 뒀까지 떠날 준비를 해주게! 난 잠시 다녀와야겠네!

시어익: 예?? 어의께서..... (황급히 나가는 봉어) 의원님! 의원님!

과거_#44. 다루가치관 / 아침

인적이 사라진 다루가치의 방
급하게 문이 열리며 봉어가 들어온다.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는 봉어.

방은 매우 어지럽혀져 있다.

아무도 없음을 깨달은 봉어.

뭔가 직감한 듯하다.

절망적인 표정이다.

봉어: 어찌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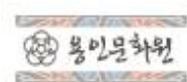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봉어, 잠시 흐느낀다.

이때, 어지러이 흩어진 물건들 속에서 무언가 발견하는 봉어.

구겨진 봉투이다.

이를 펴보는 봉어, 알 수 없는 문자가 적혀있다.

주변을 둘러본다.



이내 이 서신을 고이 접어 자신의 가슴팍에 넣는 봉어.
황급히 빠져나온다.

과거_#45. 왕실 / 오전

고종,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다.
주변은 수많은 움직임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근심어린 표정의 고종, 생각에 잠겨있다.

신하: 전하! 이제 떠나셔야 하옵니다!
고종:..... 기다리게. 곧 일어날 터이니.
신하: 전하.....
고종: (혼잣말로) 내 앞으로 백성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신하: 전하.....(흐느낀다)

과거_#46. 개성의 외각 (강화도로 향하는 길) /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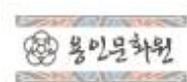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왕을 둘러싼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다.
말발굽 소리와 수레가 움직이는 소리들이 요란하다.
최이를 비롯한 무신들이 앞장서 길을 나서고 있다.
화려한 갑옷을 두른 최이와 무신들.
거만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는 봉어 일행.
봉어는 어두운 표정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다.
시어익는 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때, 봉어의 하인이 다가온다.

하인: (낮은 목소리로) 의원님.
봉어: 그래, 부탁한 일은 어찌되었는가?
하인: 예, 어렵게 사람을 찾았습니다.
봉어: (짐짓 밝아진 표정) 그런가?! 다행이네! 그래서 어찌되었나?

하인은 의원이 의뢰한 서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서신을 꺼내든다.
이를 봉어에게 전달하는 하인.

하인: 직접 옮겨 적어 주셨습니다.
봉어: (감탄하며) 고맙네! 정말 고생했구려!
하인: (겸연쩍어하며) 아닙니다 의원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봉어: 그래그래, 수고했네!

하인, 퇴장한다.

황급히 서신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봉어.

얼굴이 굳는다. 서신이 가늘게 떨린다.

눈물을 머금은 봉어.

잠시 흐느낀다.

황급히 서신을 접어 자신의 품속에 넣는 봉어.

시어익는 역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시어익: 의원님.....

봉어, 하늘을 바라본다. (F.O)

과거_#47. 처인성 / 5개월 뒤

(F.I) 자막. 5개월 뒤 처인성.

얼어붙어 있는 성 주변,
원나라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처인성 안.
부곡민들이 농기구를 이리저리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신의 거처에서 이를 관망하고 있는 김윤후.
그의 표정에서 강인함이 느껴진다.
이때, 누군가가 김윤후를 향해 오고 있다.
봉어를 따르던 하인이다.
김윤후의 곁에 있는 승려가 그를 맞이한다.

승려: 누구시오?

하인: (헐떡인다) 강화도에서 온 사신시오. 김윤후라는 승려가 여기 계시오?

김윤후: 내가 김윤후요. 무슨 일인가?

하인: 승께 급히 전해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김윤후: 나에게 말이오? 원나라의 경계가 삼엄했을 터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하인: 그만큼 중요한 물건입니다. (보자기에 싼 물건을 전하며)여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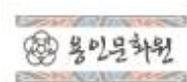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김윤후: (물건을 받아들며)누가 이런 물건을 보내신 건가?

하인: 소인은 관아의 봉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보내셨습니다.

김윤후: 봉이라니, 봉어께서 보내셨단 말인가?

하인: 예.

김윤후는 물건을 펼쳐본다.



서신 두 장, 그리고 다루가치가 봉어에게 전해준 수통이다.

과거_#48. 김윤후의 거처 / 밤

어둠속에서 달빛을 통해 서신을 읽고 있는 김윤후
이내 천천히 서신을 내려놓는다.
봉어가 보내온 수통을 살펴보는 김윤후.
수통에 새겨진 문양을 바라본다.
깊은 생각에 잠기는 김윤후.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사람을 부른다.

김윤후: 자네 있는가?

승려: 예, (안으로 들어오며) 부르셨습니까.

김윤후: 지금 원나라 장수와 만나야겠다. 나갈 채비를 하게.

승려: (깜짝 놀라며) 예!? 원나라 장수와 만나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윤후: 교섭을 해야겠네. 이번 싸움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네.....

승려: 이 시각에 적 진영 한복판으로 가시겠다니! 아니 될 말씀입니다!

김윤후: 음..... 나 하나의 희생으로 끝난다면..... 그것이야 말로 바라던 바가 아니겠는가.

어쨌든 시간이 없네, 어서!

승려: 그렇지만.....(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과거_#49. 원나라의 진영 / 밤

원나라의 진영.

여기저기 불이 밝혀져 있다.

김윤후와 승려,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곧 이들을 발견하는 원나라의 초병.

그들에게 활을 겨누며 원나라 말로 소리를 지른다.

김윤후와 승려는 멈춰 서서 투항의 뜻으로 손을 머리위로 든다.

이때, 천천히 앞으로 나오는 김윤후.

가지고 온 원나라 전통 물통과 서신을 빼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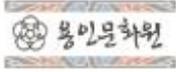
반대쪽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피는 원나라 병사들.

과거_#50. 살리타이의 게르(유목민들의 이동식 집)

가운데 장작불이 지펴져 있는 살리타이의 게르.

살리타이는 홀로 아이락을 마시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이때, 원나라의 병사들이 김윤후 일행을 포박하여 들어온다.



무슨 일이냐 묻는 살리타이.
병사들은 김윤후가 가지고온 물건을 다루가치에게 보여주며
저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한다.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짓는 다루가치.
그러나 수통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는 흠칫 놀란다.
수통을 꼼꼼히 살펴보는 다루가치.
이윽고 서신을 빼들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서신의 내용: 나 다루가치는 이곳 고려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우리 원나라가 고려를 정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다. 만약 고려와 우리가 서로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서로 이로운 일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나 다루가치는 고려와의 소모적인 전쟁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서신을 다 읽은 살리타이
수통의 문양을 다시 한 번 살핀다.
이윽고 누군가를 부르는 다루가치.
곧 원나라의 통역관이 도착한다.
통역관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다루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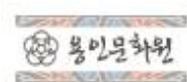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원나라통역관: 이것들, 어떻게 얻었나?
김윤후: 나 또한 갑자기 손에 넣게 되었소. 사연을 들어보니 다루가치가 우리 고려의 봉어에게 준 것들인 듯하오.
원나라통역관: (다루가치와 이야기를 나눈 뒤) 또한 이 서신은 다루가치장으로부터 써진 것인데 이것이 왜 지금 여기에 당도하게 된 것인가?
김윤후: (잠시 생각한 뒤) 난 이것들로 내일 있을 싸움을 멈추고자 하오.

김윤후의 말을 전달하는 통역관, 살리타이는 다시 말을 전한다.

원나라통역관: 살리타이께서 이것은 당신 고려인들에게 쉽게 주지 않는 물건이라고 한다.
김윤후: 이보게, 나도 직접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싸움을 멈추자는 것이오. 원나라의 군대도 광주성에서 패주한 뒤 많이 지쳐있지 않소.

살리타이 통역관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김윤후를 바라본다.
고민에 빠진 듯하다.
김윤후는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살리타이는 다시 수통을 바라본다.
곧 무언가 결심한 듯 통역관과 함께 김윤후에게 다가간다.

원나라통역관: 이 수통을 다른 이가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우정의 상징이다. 나 살리타이는 고려 사람과 원의 사람이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했으므로 군대를 회군할 터이니. 그대들은 그렇게 알라.



살리타이는 의지에 찬 표정이다.

김윤후: 정말이요!? 정녕 회군하겠다고 말하였는가?!

원나라통역관: (살리타이의 말을 들은 뒤) 그렇다. 다만 내일 해가 질 때 까지, 그리고 우리 원나라 군이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

김윤후: (감격에 차) 감사하오!

승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윤후와 승려는 기쁨에 찬 얼굴이다.

살리타이는 그들의 포박을 풀라고 이른다.

열은 미소를 보이는 살리타이.

#51. 문화원 원장실 / 저녁

원장의 이야기가 잠시 멈춘다.

침묵이 흐르는 원장실.

흠뻑 빠져 이야기를 듣던 영희와 할아버지.

뭔가 이야기가 더 있지 않느냐는 표정이다.

영희: 그래서요? 근데, 전쟁은 일어났잖아요?

문화원원장: 그렇지(미소). 이어지는 설화에 의하면, 살리타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하 장수들의 반발에 의해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

(F.B) 처인성 전투 장면

문화원원장: 결국, 봉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지.

영희: 아..... (생각에 잠기는 영희)

할아버지: 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흥미롭구먼! 허허허

문화원원장: 그렇죠? 어디까지나 설화이고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니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수통을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만 같군요.....

할아버지: 그러게 말일세. 설마.....

영희는 말이 없다.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듯하다.

할아버지는 이런 영희를 보며 웃음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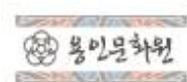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문화원원장: 얘기가 좀 길었죠?

할아버지: 아, 아니네. 덕분에 재미있었어. 묘한 경험이구먼.

문화원원장: 저야말로 의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설화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웃음)

영희: (가만히 있다가) 아,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원원장: 무슨 소릴. 덕분에 내가 더 즐거웠다.



영희: 아니에요(미소), 그리고 그 수통은..... 문화원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봐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원원장: 음..... 그래도 되겠니? 고맙구나 영희야. (웃음)

할아버지: (웃으며) 하하하, 자네 봤는가? 내 손녀딸일세!

문화원원장: (웃으며) 정말 부럽습니다 할아버지!

영희와 할아버지, 원장 모두 환하게 웃는다.

영희, 특히 밝아진 표정이다.

#52. 버스 / 저녁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있다.

영희와 할아버지도 나란히 앉았다.

옆에서 잠이든 할아버지.

영희는 창밖을 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

창밖에 보이는 용인시의 풍경이 또렷이 들어온다.

#53. 영희의 방 / 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희,

역시 걸옷을 벗어 옷걸이에 건다.

이때 핸드폰이 짧게 울린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선의 문자: 야 나 갑자기 서울 가는 게 싫어짐. 가지말까?

(영희, 피식 웃는다. 바로 답장을 보낸다)

영희의 문자: 웃기셔, 빨리 가버려ㅋㅋㅋ 근데 너 가면 진짜 후회할지도 몰라.

(바로 지선의 답장이 온다)

지선의 문자: 진짜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드네. 아무튼 싱송생송 하다고 ㅠ

(문자를 보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영희. 답장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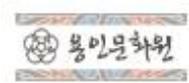
영희의 문자: 여긴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ㅎㅎ 너무 싱송생송해하지 말라구!

(곧 답장이 도착한다)

지선의 문자: 그래, 너밖에 없다 ㅠ 내일봐!

영희, 핸드폰을 닫는다.

그리고는, 미소를 짓는다.



꿈_#54. 영희의 꿈, 처인성

또다시 처인성을 거닐고 있는 영희
상쾌한 공기와 바람에 마음이 가뿐해진다.
인기척을 느끼는 영희.
뒤를 돌아보니 지난번 꿈속에서 보았던,
고려시대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서있다.
밝은 표정의 남자.
영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채고는 미소 짓는다.
함께 미소 짓는 남자.
잠시 땀을 들인 뒤 입을 열며,

봉의: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이에 환하게 웃는 영희.

(F.O)

- END -